금년(今年)의 창작계(創作界) 일별(一瞥)

역사는 돌발적 · 우발적 사건의 집적이 아니요, 영원한 계속적 · 발전적 과정이라는 역사관이 절대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단언할 자신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나 역사를 우발적 사건의 집적으로가 아니라 발전적 과정으로 볼 때에, 우리가 역사의 진행을 명료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현재의 원인으로 그리고 미래를 현재의 결과로 볼 때에 우리가 현재의 성격을 통하여 미래를 예견할 수가 있고 현재의 위치를 통하여 과거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역사를 좀 더 질서적으로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나는 금년 1년의 창작계를 총관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펜을 들고 있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과거 십 개월 동안의 창작계를 회고함에 그치지 않고 금년 1년을 한 단위로 하여, 과거의 창작계와 관련시켜 그것의 성격을 규정하고 또 그것의 성격을 통하여 명년의 창작계의 동향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작년 12월 모지상에서 을해년(乙亥年)의 창작계를 총관할 때에 그 창작계의 질적 빈약의 원인으로 나는 경향파 작가들의 관념적 무장과 또 그 이외 부류 작가들의 소품적 경향을 들었었다. 그리고 명년의 즉 금

년의 창작계는 이 두 경향을 청산할 때에 비로소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면 금년의 창작계는 과연 어떠하였는가? 우리는 먼저 경향파 작가들의 창작활동에서부터 생각해 보자.

이 파에 속하는 작가들은 그 양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또한 예년에 못지 않게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이무영, 엄흥섭, 이북명, 한인택, 조벽암, 이기영, 송영, 한설야 제씨는 다 각각 적어도 4, 5편씩 작품을 발표하여, 그들의 작품이 금년도의 우리 문단의 전 작품의 거의 반수를 점하고 있으나, 질적으로 그들의 창작활동을 살펴볼 때 양적으로는 그렇게 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영씨의 〈도박〉과 엄흥섭씨의 〈과세〉 이외에 우리에게 아무런 수확도 남겨 주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많은 작품을 산출하고도 불과 2, 3편밖에는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한 것은 무슨 까닭이며, 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들은 금년에 와서도 역시 작년에 내가 말하였던 개념의 무장을 벗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여러 번 하는 말이나 그들의 작품 속에 담긴 성격이, 착취와 횡포와 탐색 등 온갖 악의 화신인 부르주아와 그 부르주아의 탐욕의 희생이 되는, 양과 같이 선량한 그러나 또 살인 · 방화도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감행할 수 있으며 주의와 동지를 위해서는 애인도 가족도 헌신짝같이 버릴 수 있는, 광포하고 또 용감한 프롤레타리아나 또는 진보적 분자로 고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 단순한 두 성격 사이에서 전개되는 그들의 작품의 스토리도 또한 일정한 궤도를 밟아 반드시 프롤레타리아나 진보적 분자의, 부르주아나 반동적 분자에게 대한 승리로써 끝을 막는다. 이것은 그 초창기로부터 지금까지 조선의 프로문학의 온 작품에 공통되는 가장 기본적 형식이다. 그리하여 이 기

본적 형식이 점점 응화함으로, 그들의 작품은 심한 빈혈증에 걸려 완전히 개념의 촉루만 남았다.

그들도 이 현상에 전연 둔감일 수는 없었다. 팔봉의 「연장을 숙이자」는 주장이 이런 현상에 대한 그들 진영 내의 최초의 반성의 소리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연장을 수그리었으나, 이 연장을 수그린 것은 그들이 「개념의 무장」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개념의 무장을 엄폐한 데 지나니 못하였다. 따라서 근본적 절개가 아니고, 이런 고식수단인 수혈만으로 그들은 그들의 작품의 빈혈증을 고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빈혈된 작품에 화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 화장술로 그들 프로작가는 그들의 작품 속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부르주아에 대한 승리의 형식이던 살육과 방화의 직접적 수단을 포기하고 다만 종적 승리만을 암시하거나 주인공에게 그에 대한 자기도취적 확신과 긍지를 갖게 하는 간접적 수단을 채용하였다. 그러면 그 결과 그들의 작품은 어찌 되었는가. 금년도에 산출된 〈노승〉·〈파행기〉(조벽암), 〈능금나무 아래에서〉·〈아버지〉·〈숙수치마〉·〈인왕산〉(송영), 〈오빠〉·〈흑점〉·〈자매〉·〈그 남자의 반생기〉(한인택), 〈가책〉(엄흥섭), 〈유한부인〉(이기영), 〈유모〉(이무영), 〈태양〉·〈딸〉(한설야), 〈요양원에서〉(이북명) 등의 제작(諸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전히 통속소설이 되고 말았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통속소설이란, 작중인물의 성격에 통일이 없고 따라서 그 행동에 심적 필연성이 없으며 스토리와 인물과의 사이에 유기적 관련이 없는 작품을, 그리고 언제나 독자의 저급한 감상에 호소하는 작품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기한 제작품을 볼 때에, 그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작자의 개념을 합리화시키고 또 노출된 개념의 형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것이 연장을 숙인 소이다) 자기의

사상과 행동에 아무런 책임을 짐이 없이 작가의 의사대로 임기응변하여 실로 자유자재로 언행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들 작자는 그들 작품 속에 있는 프롤레타리아와 진보적 분자의 모든 언행을 전부 시인하고 과분한 감상적 동정을 보내어 우리의 애상적 동감을 암암리에 요구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점에 상기의 제작품을 통속소설이라고 단정한 이유가 있다.

프로작품의 통속소설화는 프로문학의 타락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통속소설로의 타락은 프로문학의 특질에서 귀결되는 한 형태다. 그리하여 프로문학은 금년에 들어와서 그 타락한 형식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어떠한 의미로든지 한번 완성한 것은, 더욱이 그것이 통속적인 것일 때 일시에 소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좌익 통속소설은 아직 1,2년 내에는 완전히 그 영자를 감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타락한 통속소설일 때 우리는 그것을 문학의 권외로 축출할 권리를 가질 것이니, 그것이 아직 더 명맥을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문학의 권외에서일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프로작품의 통속소설화의 원인을 프로문학의 특질에서 오는 한 필연적 귀결로서만 설명하여 왔으나, 우리 프로문학의 통속소설화의 원인은 전연 그곳에만 있지 않고, 그들 작가들의 문학적 역량의 부족에도 또한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문학적 역량이 있는 프로작가들이 우리에게 걸작을 보여 준 예가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으며, 범상한 작가는 언제나 통속소설밖에는 쓰지 못한다는 문학적 사실을 통하여 이해할 수가 있다. 이리하여 우리에게는 우리 경향파 작가 중에서 오직 2, 3인만이 진정한 프로문학의 길을 찾거나 180도의 급전향을 하거나 할 때 그의 문학적 명성을 계속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될 뿐이요, 그 여(餘)는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문학적 업적

을 남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아를 그들의 금년의 창작활동을 통하여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비경향파 작가들의 사적(事蹟)을 살펴보자.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까마귀〉(이태준), 〈비량〉·〈천변풍경〉(박태원), 〈동백꽃〉(김유정), 〈실직〉(염상섭), 〈추물〉(주요섭), 〈모밀꽃 필 무렵〉·〈인간산문〉(이효석), 〈우울〉·〈악마〉(안회남) 등 비경향파 작가들에게 있어서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도 작년과 같이 아직까지 소품적 경향이 어느 구석엔지 지배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재를 파악할 강렬한 구상력과 창조적 정신활동이 부족하다. 이는 안일한 소설형식인 일인칭소설(일인칭으로 써야 할 필연성을 가진 작품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이 그들의 작품의 거의 7, 8할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도 능히 알 수가 있다.

이태준씨는 정교한 구상력과 세련된 기교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까마귀〉와 같은 걸출한 작품을 썼다. 그리고 박태원씨도 또한 치밀한 구상력과 노련한 기교를 갖추고 있어 〈천변풍경〉같은 걸작을 써 주었다. 그러나 이태준씨와 박태준씨에게서 우리는 벌써 완성과 노숙을 느낀다. 그리하여 〈까마귀〉와 〈천변풍경〉은 그들의 역량의 한 극치점으로 우리는 이태준씨에게서 〈까마귀〉에서 보다 더 큰 박력을, 박태원씨에서 〈천변풍경〉에서 보다 다 큰 입체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효석씨는 소설과 시의 결합을 도모하여 〈모밀꽃 필 무렵〉, 〈인간신문〉 같은 아름다운 가작을 보여 주었으나 그의 이 시험은 시적 정신적으로 하여금 산문적 정신을 침해케 하여 소설의 골격을 연화시켜, 소설을 단지 아름다운 소품으로 만들 위험이 농후하다.

안회남씨의 신변소설(그의 작품을 프루스트류의 심리주의 소설에 비기는 사람을 간혹 보나 그의 작품은 결코 그런 유의 소위 심리주의 소설은 아니다)

은 저조하여 무의미한 신변잡기로 타락할 위험이 농후하고 김유정씨의 작품은 파악력은 강고하나 스케일이 좁고 주요섭씨는 좀 평속하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들의 창작태도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한 지금까지의 그들의 작품 이상의 작품을 산출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명년의 창작계를 생각하여 볼 때 그곳에 별다른 발랄한 기운을 예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금년의 우리 창작계를 회고하여 볼 때 우리의 기쁨을 크게 하여 주고, 더 나가서는 명년도의 창작계에 큰 기대를 가지게 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비오는 길〉의 작자 최명익씨와, 〈날개〉의 작자 이상씨와, 〈바위〉, 〈무녀도〉의 작자 김동리씨와 〈탁류〉의 작자 허준씨, 이 네 역량있는 신진작가의 출현이다. 그런데 나의 기쁨은 〈비오는 길〉, 〈날개〉, 〈바위〉, 〈무녀도〉, 〈탁류〉, 이 네 작품이 기성작가의 어느 작품에 비겨도 결코 손색이 없다는 그 점에만, 그리고 그들이 신진이라는 다만 그 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렬한 예술가적 양심과 진지한 창작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점에 또한 있다.

그들은 머리 속으로나 붓끝으로 작품을 만들지 않고 피와 살로 작품을 빚어내었다. 기교를 농하여 힘을 아끼지 않고, 힘에 차는 제재를 선택하여 제재와 피투성이 싸움을 하였다. 깊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두뇌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생각하였다. 심각하게 느끼었다. 그러나 피부와 신경으로가 아니라 두뇌로 느끼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문학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생활하고 있다. 문학을 실천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학은 즉 생활이요, 생활은 즉 문학이다. 문학과 생활의 합일, 이 가장 근본적인 문학 도(道)를 그들은 실천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 앞으로 그들이 더욱더 좋은 문학적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동시에 그들에 의하여

시작된 이 「문학을 생활」하는 진정한 문학의 길을 양심적 작가가 이제부터 배출하리라는 신념을 얻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나는 이상에서 금년도의 수확으로 거시한 작품들 외에도 또 〈초사흘〉(박노갑), 〈여점원〉(최인준), 〈촉루〉(정인택), 〈형수와 여승〉(임원식), 〈목화씨 뿌릴 때〉(박영준), 〈온천장의 봄〉(박화성) 등 가작이 있었다는 것과 춘원, 염상섭, 이태준, 심훈, 김말봉, 장혁주, 함대훈, 한용운, 방인근, 한설야, 박종화 제씨의 신문 · 잡지상 연재물이 있었으나 소여의 지면이 벌써 다하였고 그것을 다 통독할 여가가 없이 조홀(粗忽)을 범할까 무서워 딴 기회로 미루고 부득이 할애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두고, 명년 창작계에 대한 즐거운 기대 속에 조잡히 총관을 마친다.

(《조광》, 2권 12호., 1936. 12. 1)